

면피하려고 날 불성실한 학생으로 몰아가던데 추하
더라 너야말로 수업 열심히 안했잖아
메일에선 젠틀한 척 하더니 화올엔 돌변함
여러번 읽어봐라

내 피해사실 읽을때 수치스러워할게 이니라 여자 뒤
에 숨을때 수치스러웠어야지 진짜 정신 이상자이신
가요? / 대단한 교육자인척 하면 뭐해요 이렇게 기
본적인 데서 헛소리를 하는데 밑바닥 드러나는데/
맨날 컴퓨터만 보다보니 현실인식능력에 장애가 생
기셨나요?

당신이 하는 말 믿을 수 없다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
거 초1이 코딩 잘하는거 왜냐하면 당신같은 정신이
상자들도 코딩 좀 한다고 으스대니까 진짜 아무나 할
수 있는거라 자신감 생김
죄가 없으면 경찰서 가도 별 상관 없을텐데 염병도/
추태도 가지가지
여자 뒤에 숨어서 해결해달라고 빌빌댔던 주제에

그나이먹고 애새끼처럼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있는

거 추하다

왜 인

설마 내가 강사님 좋아한다고 생각한거 아니죠 우웬
평퍼짐한 몸매 지저분한 수염 돼지 멧따는듯한 목소
리 전혀 남자로 느껴지지 않음 고려대상도 아니었는
데

학생도 이성으로 보냐

학원 바꾸기 위해 내가 성추행 이용했다 주장

-> 막상 학원측에 나랑 잇었던 일 이야기한거 남궁
성 본인이었음 난 취성패 상담사랑 남궁성 강사한테
만 메일 보냄

학원에서 먼저 전화왔음

매니저->개인사정으로 외출중 / 부장->이 일에 대해
전화옴

-오히려 처음부터 학원 옮길 생각이었으면 어딜 만지
냐고 난리피웠을 것 그게 나한테 유리하니까

왜 저항 안했냐

코로나 때문에 자주 모이지도 않았고 집체수업 초반

이라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, 팀 프로젝트 때문에 앞으로 5개월간 봐야할 사람들인데 성추행으로 알려지기 싫었다

또 저 강사가 평소에 나 빠따로 때린다는 둥 얘기 많이했고 코딩 못하면 옆에서 한숨쉬고 꿈꿔서 위축된 상태였는데 여기서 강사 심기 거스르면 1대1로 봐줄 때 또 막말을 많이 할까봐 스트레스받아서 눈치봤다

구희승씨 계속 컴터만 보고 내 자리 보지 않았다
보더라도 잠깐 봤다

타자치는 소리

끝나고 보나 컴터에 시선고정

그날 자습시간 많아서 두리번거렸는데 다들 코딩짜는데 집중 구희승씨도 마찬가지로

타자치는소리 장난아니었고 책 펄럭펄럭 거리면서 찾아서 대단한 사람이다 싶었음

중도포기사유서

원치않은 성적 접촉 사유 안씀

그때 코로나19로 사유 쓰면 자비부담금도 안들고 학원을 옮길 수 있다고 했고 성적접촉이라 쓰면 학원

못웁길 수 있다 들어서

혹시나 학원 못 웁기는 일 발생할까봐 일부러 피했다
상담사한테 들었고 상담사는 학원에서 들었다고 했다

되게 오래만난것처러 얘기하는데 저 사람 실강수업
나온거 7일임